

전기차야? 하이브리드야?... 연비·주행·기술 '3박자' 갖춰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

고유가 시대 내연기관차 유지부담 소비자 선택지로 하이브리드 주목

신차 부제로 내수 시장에서 부진했던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반등에 나서고 있다. 바로 유럽 시장을 뒤흔든 르노의 효자 'XM3E-TECH(하이브리드)'가 국내 출시되면서부터다.

2020년에 국내 출시된 XM3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추가한 모델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판매를 시작한 XM3 하이브리드는 사전계약 5000대를 넘어선 상태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고유가 시대 내연기관차의 유지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선택지로 급부상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승을 통해 만난 XM3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연비를 넘어 주행성과 첨단기술, 감각적 디자인으로 팔방미인의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XM3 하이브리드의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XM3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곳곳에 차별화된 포인트로 채워져 있었다. 우선 유럽 시장에서 르노 아르카나의 상위 트림에만 적용 중인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를 기본 적용했다. F1 블레이드 범퍼는 F1 머신 등 고성능 차량의 공기 흡입구가 연상되는 형상으로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디자인적으로 담아냈다. 또 르노코리아는 XM3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로 일렉



르노코리아자동차 XM3 E-TECH 하이브리드 웨이브 블루 해안도로 주행 모습.

트릭 오렌지와 웨이브 블루 색상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부 디자인은 깔끔했다. 전자식 계기판과 대시보드 중간에 위치한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끌었다. 넓은 화면에는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룸미러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일반 차량과 차이점이 있다. 하이패스는 카드만 사용할 수 없고 심카드를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크기는 전장 4570mm, 전고 1570mm, 전폭 1820mm로 경쟁 차종과 비교해 길고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운전석에 탑승해보니 소형 SUV의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2열 무릎공간과 트렁크 용량(513L)은 동급 최대로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차량의 성능과 연비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주행에 나섰다. 시승은 부장 기장군에서 울산 울주군까지 약 120km를 주행했다. 도심과 고속도로 등 다양

전기차 운전하듯 부드러운 가속 가속 경쾌하지만 실내는 조용해 가장 전기차와 가까운 경험 제공 차선이탈방지 등 첨단기능 갖춰

한 도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주행 성능은 부족함이 없었다.

XM3 하이브리드는 1.6MPi 가솔린 엔진과 구동모터, 시동모터 등 두 개의 전기모터를 통해 합산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15.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구동 전기모터는 36kW, 발전 기능을 겸하는 고전압 시동모터는 15kW 출력을 낸다. XM3 하이브리드 구동계는 르노 그룹 F1 경주차에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주행에서 XM3 하이브리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엔진 개입 없



이 전기 모터만으로 부드럽게 출발했다. 시속 50km 이하 도심 저속 주행에서는 특히 변속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부드럽게 가속해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했다.

전기모터 특유의 높은 토크로 초반 가속이 경쾌하고, 실내도 전기차처럼 조용했다. '원 페달 드라이빙(가속 페달 하나로 가감속을 모두 수행하는 운전방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기차의 모습을 빼닮았다.

고속 주행에서는 내연기관차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터보다 엔진의 개입이 많아지며 묵직한 주행을 이어갔다. 특히 시속 100km를 넘는 고속 주행에도 회생제동이 개입해 연료를 절약하며 주행을 이어갔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 일반 모드와 달리 가속 패달에서 묵직함이 느껴졌다. 가속 패달에 힘을 주자 빠르게 반응하며 뛰어난 가속력을 자랑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XM3를 소개하면서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차원의 편안함과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가장 전기차와 가까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차선이탈방지보조시스템과 차간거리 유지 등은 장시간 주행하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연비도 우수한 편이다. 공인 복합 연비는 17.4km/L인데, 급가속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21.0km/L를 기록했다. 연비와 주행, 첨단 기술 등을 두루 갖춘 XM3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림별로 ▲RE 3094만원 ▲인스파이어(IN SPIRE) 3308만원 ▲인스파이어 e-시프터 333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다시 멈춘 '세계의 공장'... 제조 허브 광저우 봉쇄령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세 3년 만에 '최악' 감염병 유행기, 역동적 방침 고수

'세계의 공장'이 다시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면서다. 하루 감염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여 만에 다시 최악의 상황이고, 특히 공장들이 밀집된 광저우 등지는 사실상 봉쇄령이 내려졌다.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31개 성·시·자치구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4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봉쇄령이 시작된 5월 이후 반년여 만에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이달 들어 1일 2755명에서 2일 3200명, 3일 3871명, 4일 3659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 아니지만 문제는 감염자 발생만으로도 봉쇄와 격리를 단행하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다.



중국 광저우에서 방역관들이 주민들을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격리소로 옮겨지고, 인근 지역은 봉쇄됐다. /AP·뉴스시

중국 당국은 방역 정책 완화 소문에 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고, 감염병 유행기인 겨울철도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역동적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은 봉쇄 등 통제가 강화됐다.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에서는 감염자가 집중된 하이주구를 5일부터 전

면 봉쇄했다. 하이주구 전 지역의 대중교통운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은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없다.

광저우는 지난 6일 하루에만 193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여 만에 일일 감염자 수는 최고치다. 지난달부터 부분 봉쇄와 식당 폐쇄, 코로나19 의무 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했다.

광저우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3년

만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엄중한 방역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제조 허브 등을 중심으로 봉쇄가 이어지면서 경기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49.2로 다시 기준선인 50 아래로 내려갔다. 제조업 PMI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인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해석된다. 상하이 봉쇄령이 시작된 4월에는 47.4까지 떨어진 바 있다.

공식 행사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당초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광저우 모터쇼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주최측은 "중국 당국과 광저우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요구로 모터쇼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연내 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세계육상ラリー 광저우 23'는 2025년으로 2년이나 연기됐다.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한 중국육상협회와 광저우 조직위원회가 세계육상연맹과 논의한 끝에 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공유주거 더 안락하게 스마트싱스 체험 공간

삼성전자 스마트싱스로 공유주거 공간을 더 안락하게 만드는 방법이 소개된다.

삼성전자는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 예비뉴에 '스마트싱스 X hey(헤이) 성수'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공간은 갤럭시 기기부터 비스포크 가전 등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들과 함께 스마트 조명과 블라인드 등 외부 기기를 연동해 스마트싱스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MZ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따로 또 같이하는 일상'을 가능케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프롭테크 기업인 트러스테이가 운영하는 공유 주거 공간 '헤이'를 활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트러스테이와 '스마트 공유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유 주거 공간 담겨 비스포크 큐커로 와인 모임을 즐기거나, 각자 맞춤형으로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슈드레서를 사용하는 등 모습을 소개했다. 거실에서는 '파티 모드'를 설정해 음악과 화려한 조명을 켜고, 침실에서 '꿀잠 모드'를 실행해 숙면 환경을 한번에 조성할 수도 있다. /김재용 기자